

## 정부, '기술가치평가제' 내년 시행

내년부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면 정부 주도하에 민간 금융권으로부터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받는 '기술가치평가제도(가칭)'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을 늘리는 기업일수록 금융권에서 한결 수월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와 기술가치평가제도 민간자문단에 따르면 연내 정부가 강력히 지원하는 기술가치평가제도 시행 준비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추진과제의 하나인 '기술혁신 확산 및 전주기적 신기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시스템 확립 작업의 구체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같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와 민간자문단은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가치를 측정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산자부, 국가R&D 인건비 비중 확대

정부의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장비나 시설투자 중심에서 인적자원 위주의 투자로 전환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는 산업기술 관련 국가R&D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을 현재의 23%에서 45%까지 높이고 사업시행기관이나 업체에 기술인력 신규채용 확대를 권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동관리규정'과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인건비 상승분 중 절반을 신규 기술인력으로 채용하도록 해 이공계 출신의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나머지 절반은 기존 인력의 임금상승에 사용, 고급인력 유치에 필요한 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받던 연봉 이상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했던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 행자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구축에 3년간 100억원 투입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전자정부 과제로 꼽혀온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구축 사업'에 오는 2007년까지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내년 5월까지 완료되는 시범운영에는 38억여 원을 집행, 기존 전자정부참여광장(<http://forum.egov.go.kr>)과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와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구축 BPR/ISP 최종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행계획과 향후 추진일정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5월까지 38억6300만원을 투입, 파일럿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비롯해 DW·DM구축 등의 '시범단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참여광장 등을 통합한 '파일럿시스템'은 내년 1월까지 구축이 완료될 계획이다. 관련 서버는 시범 시스템 완료와 동시에 대전의 제1통합전산센터로 전면 이전하게 된다.

내년 5월까지의 시범단계에 투입되는 38억여 원의 예산 가운데 SW개발비와 SW구매투입비가 각각 17억원과 10억5000만원 등으로 가장 많다. 이밖에 하드웨어 구매에 9억8000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3000만원 등의 순으로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